왕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역사가 보인다

‘심리학으로 보는 고려왕조실록’

석산 지음

“공민왕도 전왕들처럼 즉위하기 전까지 원에 볼모로 가 있었고, 원나라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녀가 바로 노국대장공주(노국공주)인데, 앞선 왕들이 대부분 원나라 아내를 싫어했던 것과 달리 공민왕은 노국공주를 끔찍이 아꼈다…. 과거의 원나라 출신 태후들과 달리 노국공주는 살아생전에 남편의 반원정책을 적극 도왔다. 변함없이 믿어 주는 든든한 배경이었던 아내를 잃자 공민왕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되어 버렸다.”

〈본문 중에서〉

고려 31대 공민왕은 사랑하는 아내 노국공주가 죽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한다. 그에게 노국공주는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든든한 우군이었다. 노국공주가 죽자 공민왕은 덩달아 꿈도 잃고 만다.

고려왕조실록에는 노국공주가 죽자 공민왕이 “3년간 고기는 입에 대지도 않고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고 기록돼 있다.

인간의 자아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드리워져 있다. 칼 융은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 이 어두운 요소가 ‘그림자’인데 공민왕은 노국공주의 죽음을 계기로 ‘그림자’에 짓눌리게 된다.

고려 왕 34명 내면에는 저마다 남모를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 그림자에는 심리적 용어인 ‘자아’가 자리한다.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자아는 사고·인식·기억 등을 간섭한다. 다시 말해 불필요한 흔적을 지우고 외부 세계를 현실에 반영한다.

고려의 역사를 왕들의 심리를 바탕으로 분석한 책이 나왔다. 다양한 방송매체의 강사로 활동 중인 석산이 펴낸 ‘심리학으로 보는 고려왕조실록’은 왕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었던 이들의 심리를 분석한다.

저자는 왕들의 심리 상태가 역사를 움직인 동인(動因) 중의 하나라는 관점을 취한다. 500년 고려사는 ‘왕들의 심리사’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이들의 내면은 다층적이고 역동적이었다.

궁예와 왕건은 출신과 성장 배경이 확연히 달랐다. 궁예는 태어나자마자 버림을 받고 유모의 손에서 자랐다. 반면 왕건은 지방 세력가 아들로 태어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

서로 다른 배경은 두 사람의 인생 또한 상이한 궤적으로 이끈다. 궁예는 내부에 잠재된 그림자를 잘 다스리지 못해 멸망의 길로 들어섰고, 통솔력과 포용력을 키운 왕건은 민심의 지지로 대망을 이루었다.

저자는 단순히 환경 차이가 아니라고 말한다. 왕들은 늘 만인의 관심과 질투, 원망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면에 드리워진 ‘그림자’를 발전과 성장의 계기로 삼은 왕들은 성군이 될 수 있었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악덕군주라는 오명을 피할 수 없었다.

여러 왕들의 사례는 이 같은 사실을 방증한다. 7대 목종은 어머니가 승려 김치양과 사통(私通)에 빠져 자신을 소홀히 하자, 정서가 불안정해져 후천적 동성애자가 되었다. 8대 현종은 왕위 계승자라는 신분 탓에 수차례 위협을 받았지만 불굴의 의지로 악조건을 극복해 현군이 되었다.

17대 인종 때는 여진족의 강성과 외척의 득세로 국운이 기울던 시기였다. 의존적 성격의 인종은 외부로 눈을 돌려 기댈 사람을 찾았고 이로 인해 사회는 혼란이 가중되었다.

공민왕의 아들 우왕은 32대 왕위에 오르지만 정통성 콤플렉스로 대인 의존증이 심해진다. 보수세력 대표 최영과 신진세력 대표 이성계가 대립하고, 결국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폐위되는 불운을 맞이한다.

책을 펴낸 저자의 생각은 간단하다. “고려왕 34명은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들의 행적을 심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도 자신의 그림자에서 빚어지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숙한 자아 통합을 이룰 수 있다.”

〈평단·1만4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시대 사랑에 관한 성찰

‘우리시대의 사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지음

사랑은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 주제다. 수많은 예술 작품 주제가 사랑일 정도로 사람들의 사랑에 대한 관심은 지대하다.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원장 김신중 교수)이 ‘우리 시대의 사랑’을 펴냈다. 지난해 3월과 10월에 펴낸 ‘슬픔’ ‘분노’에 이은 인간의 감정을 다룬 세 번째 총서다. 이로써 인문한국(HK) 사업을 수행중인 호남학연구원 감성인문학사업단의 ‘우리 시대의 감성’ 시리즈가 완결된 셈이다.

책은 소통매체로서 사랑이 지닌 현재적 모습과 각 시대 공동체를 지지하는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조명한다. 또한 사랑을 매개로 한국사회와 동아시아의 과거·현재를 점검함으로써 대안적 매개로서의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들여다본다.

필자들은 저마다의 관점에 따라 우리시대의 사랑에 접근한다. 각각의 글들은 하나의 사랑으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라 물결처럼 사유의 지평이 확장된다.

하나의 목소리가 아닌 다성의 목소리로 사랑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김신중 호남학연구원장은 “감성적 스펙트럼을 통해 포착된 한국 사회의 모습이 슬픔, 분노, 사랑을 주제로 한 세 권의 총서 속에 서로 다른 색깔로 잘 그려져 있다”고 발간 의미를 평한다.

〈전남대학교출판부·1만9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구는 이미 한계상황에 와 있다

‘대붕괴’

폴 길딩 지음

“지구는 꽉 차 있다. 지구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한계상황에 와 있다. 현재 인류의 사회와 경제는 너무 비대해져 그런 몸집을 지탱해 줄 지구의 한계를 이미 벗어나, 이젠 흘러넘치고 있다.”

호주출신 환경운동가이자 ‘지구의 지속가능성’ 분야의 세계적인 이론가인 폴 길딩이 ‘대붕괴’를 펴냈다. 그는 인류의 수요가 지구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1986년의 일이라고 본다.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난 지금, 저자는 이제 지구 생태계가 고장 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고 경고한다.

그렇다면 생태계를 위기로 몰아넣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일까? 저자는 주저 없이 전 세계의 끊임없는 ‘성장 지상주의’를 꼽는다. 성장이 없으면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없고, 소득이 늘지 않으면 소비도 늘지 않고, 소비가 줄어들면 생산과 고용을 정체시킨다. 이런 악순환은 사회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진다.

저자는 더 이상 경제 성장 모델은 쓸모가 없으며 성장의 종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단언한다. 그의 주장은 이미 시장자본주의 창립자들, 예컨대 케인스, 존 스튜어트 밀, 애덤 스미스 등도 불가피한 현상으로 예측했던 사실이다.

더 늦기 전에 지구와 자연 생태계 그리고 이것들과 밀접한 관계인 세계 경제 시스템에 발생한 문제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예사롭지 않다. 〈두레·2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탈북, 살아남은 자들의 슬픔

‘수치’

전수찬 지음

2004년 문학동네작가상을 수상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한 작가 전수찬이 세 번째 장편소설 ‘수치’를 펴냈다.

등단 당시 실존적 고뇌에 대한 녹록치 않은 시각을 보여준다는 평을 받을 만큼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남다른 작가다. ‘수치’는 인간의 가장 내밀하고도 연약한 감정에 초점을 맞춘다.

주인공은 모두 세 명의 탈북자들로, 이들은 삶의 지척에 있는 죽음의 그림자와 끊임없이 다툰다. 원길은 가족과 함께 북한을 탈출하지만 중도에 아내가 쓰러지는 바람에 간신히 딸을 업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남한에 온 원길은 같은 처지의 영남과 동백을 만나는데, 그들은 모두 가족을 버렸다는 죄책감과 살아남아 생을 이어간다는 수치심에 빠져 있다.

소설은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야 하는 탈북자들의 슬픔과 번뇌를 다룬다. 여러 층위의 사회적 문제를 풀어내는 작가의 재주가 만만치 않다. 〈창비·1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일상을 지배하는 감정의 응어리

‘모멸감’

김찬호 지음

우리 주변에 만연한 ‘모멸감’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를 들여다본 책 ‘모멸감-굴욕과 존엄의 감정사회학’이 나왔다.

저자인 성공회대 교양학부 초빙교수인 김찬호 교수는 모멸감을 ‘나의 존재 가치가 부정당하거나 격하될 때 갖는 괴로운 감정 ; 한국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감정의 응어리’로 해석했다.

책은 대놓고 또는 은근히 밀어내는 ‘무시’, 불쌍한 대상으로 못 박는 ‘동정’, 열등한 존재로 구분 짓는 ‘차별’ 등 모멸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들여다 본다.

또 한국에서 모멸감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경험되는지, 모멸감을 딛고 일어서는 힘은 어디서 오는지 등을 인문학·심리학 문헌과 뉴스 기사, 드라마, 영화, 문학작품 등을 통해 쉽게 설명한다.

책에는 작곡가 유주환씨가 김교수의 글을 읽고 작곡한 ‘현악 사중주를 위한 열개의 단상, 모멸감’의 CD도 실려 있다. 〈문학과 지성사·1만3500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세계 선진지에서 배우는 ‘문화도시’

‘문화가 도시를 살린다’

원제무 지음

파리, 뉴욕, 런던, 베를린, 함브루크, 빈, 프라하, 부다페스트….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들 도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누구나 공감하는 세계적인 문화도시라는 것이다.

역사와 전통, 영혼이라는 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제는 문화도시에 대한 철학을 세워야 할 때이다.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도시공학 박사 원제무 교수가 우리의 도시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문화가 도시를 살린다’를 펴냈다.

책은 근래 국내 지자체들의 화두로 떠오른 문화도시에 대한 환상을 다양한 외국사례들을 통해 깨뜨린다. 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성찰 없이는 문화도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도시가 문화도시로 가려면 세계 도시들이 경험했던 문화 관련 문제와 이슈, 정책 그리고 해결책을 살펴보면서 지혜를 얻는 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파리, 뉴욕, 런던, 에든버러, 더블린, 오슬로, 바르샤바, 베르겐 등 저자가 직접 도시를 거닐며 일상적 문화와 가치를 성찰한 글과 그림이 한편의 옴니버스영화를 보는 듯 하다. 무엇보다 휴머니즘 가치가 복원되는 공간이 진정한 문화도시라는 메시지가 깊은 울림을 준다.

〈피앤씨미디어·1만5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신간

▲아랍의 봄=‘재스민 혁명’ 사건 이후 중동과 북아프리카 독재국가들에서 민주화 혁명이 일어난 ‘아랍의 봄’이 전개된 과정을 글과 그림으로 재구성한 그래픽 노블. 독재 정권이 어떻게 자리를 잡았고, 동조하거나 반대하는 종교 세력은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며, 어떤 계기로 ‘아랍의 봄’이 촉발돼 전개됐는지, 누가 혁명을 주도하고 투쟁하다가 어떻게 희생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준다. 〈이숲·1만7000원〉

▲책 잘 만드는 책=출판 초보자들과 전문가들까지 책 만드는 사람 모두를 위한 책. 종이의 규격부터 고르는 법, DTP와 디지털 출판, 인쇄 및 제책, 가공, 각종 제작 관련 업체들, 예산 집행에 이르기까지 출판에 관한 모든 정보가 담겨 있다. 출판 제작자인 저자가 현장에서 체득한 정보와 노하우가 정리돼 있으며, 사진과 인포그래픽 등 시각 자료들도 적재적소에 풍성하게 실려 있다. 〈두성북스·2만8000원〉

▲흡수하는 마음=0세에서 6세 사이의 아이를 둔 부모들이 읽어야 할 아동교육서의 바이블. 1949년 인도에서 출간된 마리아 몬테소리의 ‘The Absorbent Mind’를 번역했다. 아이가 태어나 취학 전까지 스스로를 형성해가는 내면의 풍경을 감동적으로 그렸다. 자녀교육서라고 규정하기에는 내용과 깊이와 폭이 상당하다. 과연 고전답다. 자연과학과 의학, 철학, 심리학, 인류학 등 다방면에 조예가 깊은 저자의 이해력이 유감없이 발휘되고 있다. 〈부글·1만8000원〉

▲서산(전 10권)=서산대사 휴정의 이야기를 그린 신지견의 대하 장편소설 ‘서산’ 전 10권이 완간됐다. 조선의 성리학은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로 이어진 불교적 전통을 극단적으로 이단시하면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왔다. 소설은 그릇된 양반 문화와 부패 구조에 대항하는 분자적 탈주의 흐름을 그려내고 있다. 혁명을 꿈꾼 세력들이 임진왜란을 만나 혁명에의 꿈을 접고 민족 존망의 전쟁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를 그린다. 〈연인M&B·12만원〉

▲백양 중국사 1~3=20세기의 사마천 백양이 옥중 집필한 역사서. 중국사 전체를 반성적 입장에서 기술했다. 책은 중국사의 반인권, 봉건적 요소들을 비판함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으로 중국과 중국인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1권 ‘중국의 기원부터 동한 왕조의 멸망까지’, 2권 ‘삼국시대부터 원 정부의 건립까지’, 3권 ‘명 왕조의 흥기부터 청 왕조의 멸망까지’로 집약했다. 〈위즈덤하우스·1권 2만8000원, 2·3권 각 2만5000원〉

▲쿠바혁명사=쿠바혁명 55주년, 새로 쓴 쿠바혁명의 사회사. 가장 큰 특징은 쿠바혁명을 정치사가 아니라 사회·문화사의 틀로 쓰고 있다는 점이다. 아비바 촘스키 교수는 역사학자이면서도 인종, 젠더, 섹슈얼리티, 종교 등 사회학적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쿠바 사회의 다양성을 보여 준다. 문학, 영화, 춤, 정치, 음식에 이르기까지 쿠바의 속살을 드러낸다. 〈삼천리·1만8000원〉

어린이 책 꽂이

▲따라 하는 명화 놀이책-동물편, 인물편=미술 작품을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예술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과 화가에 대한 소개를 읽은 후 접혀 있던 책장을 펼치면 직접 작품을 따라 해 볼 수 있는 미술 활동이 담겨 있다.

아이들은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면서 어렵게만 느끼던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

〈주니어RHK·각 권 1만1000원〉

▲보름달 뜨는 밤에=늑대와 염소가 하룻밤 사이 친구가 되어 둘만의 비밀 우정을 지켜 나가는 그림 동화 ‘가부와 메이 이야기’ 시리즈 마지막 권. 어린이들에게 ‘폭풍우 치는 밤에’로 잘 알려져 있다. 염소 메이를 구하기 위해 눈사태를 일으켜 자신의 목숨을 내던진 가부와 홀로 남아 푸른 숲에 도착한 메이의 뒷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아이세움·1만원〉

▲화내기 싫어=부끄럽 많고 마음 약한 울보이지만 알고 보면 야무진 1학년 단이의 이야기. 엄마 아빠와 단이의 대화를 잘 들여다보면 아이의 눈높이에서 함께 마음을 읽어 주며 대화하는 엄마 아빠의 자연스러운 노력이 엿보인다. 아이를 하나의 인격을 가진 대등한 존재로 바라보면서 자연스럽게 얽힌 감정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책읽는곰·9500원〉

▲이이화의 주제로 보는 한국사 1~3=‘역사 할아버지’ 이이화가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주제별 한국사 이야기. 어린이가 궁금해하는 내용,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을 주제별로 엮어 이야기로 풀이했다. 한국사의 흐름을 깨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과 놓쳐선 안 될 주제를 빼놓지 않았다. 〈풀빛미디어·각 권 1만2000원〉

▲마법 같은 선물이야=‘마당을 나온 암탉’의 황선미 작가의 신작. 오로라를 보기 위해 망설임 없이 두 번이나 캐나다 행을 선택한 작가가 여행 틈틈이 적은 메모로 이야기를 구성했다. 운율 있는 노랫말로 표현에 서툰 두 아이가 조금씩 대화를 이어 가는 과정은 작가 특유의 시적이고 간결한 문체가 더해져 보다 자연스럽다. 〈시공주니어·9000원〉